

# 광주 푸른길 ‘숨쉬는 폴리’서 만나요

광주비엔날레, ‘순환 폴리’ 첫 선  
친환경 소재... 시민 사용공간 초점  
건축가 조남호와 ‘재료실험실’ 예정  
인문학당 ‘광주폴리×우리밀 2’ 진행



광주폴리 둘레길 거점이 되는 ‘숨쉬는 폴리’

첫 인상이 북 유럽의 주택 같았다. 정교함과 단아함, 세련미가 느껴졌다. 목재를 자유자재로 짜맞춘 형태는 얼핏 이목식 주택을 떠올리게도 했다. 푸른길이라는 맞춤형 곳에 들어서 ‘숨쉬는 폴리’라는 명칭과도 잘 어울렸다.

광주폴리 둘레길 거점에 마련된 ‘숨쉬는 폴리’가 첫 선을 보였다.

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박양우)는 제 5차 광주폴리 ‘순환폴리’ 일환으로 조성한 ‘숨쉬는 폴리’를 공개했다. 비엔날레는 현재 제5차 광주폴리 사업 아래 광주폴리들을 유무형으로 잇는 ‘광주폴리 둘레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배형민 제5차 광주폴리 감독은 “작년 여름부터 건축가들과 함께 시작한 이번 ‘숨쉬는 폴리’는 친환경 지역기반 재료를 위주로 작업을 해왔다”며 “건축적 환경은 물론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초점을 둔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번 폴리는 건축가 조남호의 작품. 인근 동명동의 ‘동구인문학당’과도 가까워 접근적인 측면에서 여러 모로 활용도가 높아 보였다. 공연을 즐기거나 운동을 하고 잠시 들러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다.

외관 벽면이 정교하게 짜여져 있어 비스듬하게 보이는 틈새가 ‘숨을 쉬는’ 작은 구멍으로 보였다. 벽체가 공기와 습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돼 환기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배 감독은 “‘숨쉬는 폴리’는 공기와 습기를 조절하는 벽체, 태양광 패널의 효율적인 디자인,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목재 등 지속가능한 방법을 다양하게 도입했다”며 “대지의 일부 기능을 유지하고 벽돌을 한 단계 올려 작품을 조성한 것도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배 감독의 안내를 따라 내부에 들어서자 나무로 구획된 정교한 사각형들이 천장과 벽면을 에워싼 모습이 들어왔다. 천정은 투명한 유리로 돼 있어 그곳을 통해 환한 빛이 내부로 스며들었다. 남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나무 재료들이 서로의 짝을 찾아 결합된 모습은 절제된 마를 선사했다.

배 감독에 따르면 올 폭염 때에는 내부에 에어컨이 없어도 외부 온도보다 5도 낮게 유지됐다.



‘숨쉬는 폴리’ 인근에 들어선 폴리 조형물.

‘숨쉬는 폴리’의 또 하나의 장점은 다른 지역에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다. 이곳에 사용된 목재가 친환경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상당부분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환경 규제가 강화돼 건설 분야의 목재 사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해외 의존적이어야 한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아울러 둘레길의 거점인 ‘숨쉬는 폴리’ 첫 선을 계기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먼저 오는 11월 3일(오전 11시) ‘숨쉬는 폴리’에서 ‘숨쉬는 어린이 도서관’이 열린다. 기후환경에 대한 어린이들의 이해를 돕는 작은도서관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며, 당일 오후 3시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바다 환경 이야기’가 펼쳐진다.

11월 4일(오전 11시, 오후 2시)에는 건축가 조남호와 함께하는 ‘순환폴리 재료실험실’이, 인근 동구인문학당에서는 (오후 2시) ‘광주폴리×우리밀 2’가 예정돼 있다.

또한 ‘순환폴리 재료 실험실’을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동명동 한옥 현장 등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각 폴리의 친환경 건축 재료를 체험할 수 있도록 건축가들이 직접 나선다. 지속가능한 건축 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일환이자 광주폴리에 대한 주민의식 함양, 관심 환기 차원이다.

어셈블 스튜디오+이틀리에 루마+비비 아키텍츠는 동명동의 한옥을 리노베이션할 예정이며, 현장에서 굴과 전복 껍질을 이용한 시멘트 벽체, 해조류를 이용한 내장 패널 등에 대해 실험한다.

이도 토요 팀은 지역의 장인, 섬유기반 건축 구조 전문가, 국내 옷질 재료 생산 기업과 협업해 옷질을 건축에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고가의 공예로만 인식돼 온 자연 옷질이 플라스틱의 대체재로 사용될 수 있는가를 탐색하는 시간이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6명 작가 이색 전시 ‘너의 시간’

무등현대미술관, 11월1~30일 특별기획전



한기주 작 'Work-間'

엇그제 새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올해도 두 달 여 시간밖에는 남지 않았다. 시간이 화살처럼 지난다는 말은 그만큼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것을 말한다. 그럼에도 누구에게나 시간은 똑같이 주어진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의미있게 보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주어진다.

늦기를 ‘시간’을 테마로 한 사유를 요하는 이색적인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무등현대미술관(관장 정승규)은 특별기획전 ‘너의 시간’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연다.

김인태, 김일권, 박지현, 이경희, 이지승, 한기주 등 6인 작가들은 모두 한지 재료를 활용해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서울 을지예술센터를 운영하는 박지현 기획자와 협업으로 추진됐다.

작가들은 삶에서 경험한 내용을 ‘시간’이라는 테마에 수렴하는 작품으로 형상화했다. 제각기 삶과 예술에 대한 태도는 작품을 통해 세계관에 연결되며, 작품은 동시대성을 만들어낸다. 작가들이 초점화하는 시간은 그 자체로 ‘예술적인 시간’을 환기한다.

김일권 작가는 ‘여명의 시간’으로 시간을 집약한다. 어린 시절부터 술하게 바라봤던 순천만 섬의 풍광과 공기는 마치 작품에 스며들듯 표현돼 있다.

김인태 작가에게 시간은 ‘그로테스크한 시

간’이다. 괴기스럽고, 우스꽝스럽다는 ‘그로테스크’라는 말처럼 작가는 비틀어진 형태를 매개로 대상의 본질에 다가간다.

‘칼의 시간’이라 이름붙인 박지현 작가는 회화, 조각의 장르 구분 없이 작업한다. 종이 조각이 겹쳐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공간과 작품의 변화는 다채로운 해석을 요한다.

이경희 작가의 ‘내면의 시간’은 물위에서 시작된다. 유영하는 재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상호작용을 이미지로 구성하는 작업은 ‘내면의 시간’으로 연계된다.

이지승 작가는 카메라로 순간을 포착한 ‘속독의 시간’을 보여준다. 삶에서 경험한 특정한 장면을 보여주는 데, 삶의 우연성에 대한 성찰이 돋보인다.

한기주 작가의 ‘흔적의 시간’은 한지의 물성을 이용한다. 도끼와 끌로 긁어낸 나무의 결이 한지로 캐스팅되면서 기억을 새기듯한 분위기를 환기한다.

한편 정승규 관장은 “이번 전시는 한지 재료를 활용해 작가들이 저마다 사유한 시간의 의미를 부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6명 작가의 개성적인 작품을 매개로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삶 자체를 깊이있게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시 개막식은 오는 11월 7일 오후 4시 미술관 전시실에서 개최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장애인체전의 성공 개최 ‘화합콘서트 동행’ 11월3일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제104회 전국체전이 지난 19일 막을 내린 가운데 오는 3일부터는 ‘제43회 전국 장애인체전’이 열린다.

이와 맞물려 전국 장애인체전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는 ‘화합콘서트 동행’도 개최된다.

전남도와 영광군이 주최하는 이번 콘서트는 전국 장애인체전이 막을 올리는 3일 오후 7시 영광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팡파르를 울린다.

먼저 광주-전남 클래식 전문연주자들로 구성된 ‘양상블 칸타빌레(지휘 강직, 대표 김은민)’의 공연을 볼 수 있다. 웅장함이 특징인 협주곡 ‘팔라디오’를 시작으로 ‘사운드 오브 뮤직’, ‘캐리비안의 해적’ 등 영화 음악들이 관객과 만난다.

전통 클래식 곡 오베라흐의 ‘천국과 지옥’, ‘형가리안 무곡’도 레퍼토리에 있다. 또 휠체어 성악가 테너 이남현, 소프라노 박선경의 합동공연도 가을밤을 수놓는다. 장애인 성악가와 비장애인 성악가의 협연을 통해 ‘화합’과 ‘동행’이라는 이번 축제의 의미를 환기한다는 계획.



양상블 칸타빌레가 연주하는 장면.

<영광군 제공>

전국 장애인 체전과 맞물려 진행되는 만큼 휠체어 스포츠 댄스도 볼 수 있다. 휠체어 댄스스포츠 국가대표(2018-19) 강세웅, 이미경이 공연을 선보이며 부활의 4대 보컬 김재희도 무대에 오른다.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이진숙 공연기획자는 “장애인 전국체전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는 의미에서 열리

는 화합 콘서트를 기획했다”며 “장애인은 문화예술에 적극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이번 공연을 통해 없어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관람료 전석 3000원, 티켓링크 또는 영광문화예술의전당 현장 예매. /최류빈 기자 rubi@

# ‘신문잡지종람소와 3·1운동’ 학술대회

한국학호남진흥원, 11월3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역사관

오는 11월 3일은 제 94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이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은 3·1만세 운동, 6·10만세운동과 함께 일제강점기 3대 민족운동이기도 하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맞아 광주지역 3·1만세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비밀독서회인 ‘신문잡지종람소’의 의미와 역할 등을 살피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천득염)은 11월 3일(오후 2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역사관에서 ‘신문잡지종람소와 3·1운동’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신문잡지종람소는 신문이나 잡지, 책 등을 열람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광주3·1운동 당시에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 비밀결사 조직으로 활동했다.

학술대회는 총 2부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나상필(한국학호남진흥원) 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1부는 박혜현 조당대 교수가

‘신문잡지종람소와 광주3·1운동’을 발표한다. 이어 이항희 광주학생독립운동역사기념역사관 관장이 ‘광주-전남 3·1운동과 여성의 역할’을, 장성홍 국민대 명예교수가 ‘3·1운동의 성격과 역사적 의의’를 주제로 발표를 한다.

2부는 종합토론 시간에는 김성 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전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가 진행된다. 조상현 목포문화원 사무국장을 비롯해 김영호 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전 이사장, 신혜란 인천대학교 독립운동연구소 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천득염 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호남 독립운동의 역사를 계승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며 “신문잡지종람소를 매개로 펼쳐졌던 호남 독립운동 역사가 깊이있게 조명돼, 호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계승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국제보청기

Since 1982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